

인천, IT·BT 복합기술단지 조성 구체화

인천시는 청라국제도시에 조성할 IT·BT 융·복합기술단지인 <국제 BIT-PORT>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부지 매입을 추진한다고 6월6일 밝혔다.

2011년 하반기에 57만3000㎡를 한국토지주택공사(LH)로부터 780억원에 매입해 본격적인 교육·연구단지 유치에 나설 계획이다.

국제 BIT-PORT는 연구·개발시설 19만8000㎡, 교육·운영시설 6만6000㎡, 산학협력시설 13만2000㎡, 주거·상업시설 13만2000㎡로 구성될 예정이다.

인천시는 2010년 3월 서울대, KAIST, 인천도시개발공사와 국제 BIT-PORT 조성 업무협약을 맺은데 이어 11월에는 중앙 투·융자심사위원회에서 재원 확보 후 사업을 추진하는 조건으로 통과됐다.

인천시는 연말까지 부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2년 실시계획을 변경한 뒤 착공해 2014년까지 BIT-PORT를 조성할 방침이다. <저작권자 연합뉴스 - 무단전재·재배포 금지>

<화학저널 2011/06/08>